

# “오직 소리 의지해 악기 배우는 열정 감동”

해군 3함대·은광학교 '25년째 특별한 하모니'

“악보 대신 오직 소리에 의지해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의 끈기와 열정이 오히려 우리 장병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목포에서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25년째 특별한 하모니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20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이하 3함대)에 따르면 3함대 군악대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은광학교 관악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악기 지도 능가기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들의 각별한 인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악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은광학교가 전남도교육청에 자원봉사를 요청했는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모색하던 3함대 군악대가 선뜻 손을 내밀며 첫 만남이 이뤄졌다.

올해 수업은 지난 10일 시작됐으며, 매주 금요일 함대 내 대합주실에서 2시간 동안 군악대장과 악기별 전공 장병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플루트, 클라리넷 등 관악기를 중심으로 한 밀

2002년 인연...군악대 매년 재능기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청각 맞춤' 레슨

오는 11월 군악대-학생 합동무대 예정

착 그룹 레슨이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각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방식이다. 악보를 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장병들이 먼저 연주로 소리를 들려주면, 학생들이 귀로 듣고 따라 연주하고 이를 다시 세심하게 교정해 준다.

눈 대신 귀와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기에 시간은 배로 걸리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는 음악적 교감이 이뤄진다.

처음에는 악기 다루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학생들도 점차 자신감을 얻어 이제는 서로의 소리에 맞춰 훌륭한 합주를 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은광학교 김도현(16) 학생은 “음악을 배우기



최근 해군 제3함대사령부 대합주실에서 3함대 군악대 장병들이 은광학교 관악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각 맞춤형 악기 지도를 하고 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 제공>

전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며 “소리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3함대 군악대와 은광학교는 매년 연말 학예 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군악대가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합

동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서용덕 3함대 군악대장은 “악보 없이 오직 소리만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열정과 끈기는 오히려 우리 장병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며 “25년 동안 함께 성장해 온 이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표=정해선 기자



## 함평군 '농촌 커피·디저트 실무 교육'

함평군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배우는 커피와 디저트’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바리스타 실무와 디저트 제조 기술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접목한 디저트 개발 및 카페 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본 만큼, 향후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함평=김영규 기자



## 담양교육지원청 '역량 강화 연수'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달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교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교육, 복지, 심리, 진로 등 다방면의 영역을 연계해 위기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 제도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까지 초·중·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각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체계 운영 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 합동순찰·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북구청, 자율방범연합대, 전남대 학생순찰대 등 130여명과 ‘지역 협력치안 공동체 범죄예방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남대 후문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전남대 교내 및 주변 상가, 주택가 일대 취약지에 대한 야간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이승일 광주 자율방범연합회장은 경찰청 주관 제12회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윤찬용 기자

# GIST, AI 시대 인문학 강화...하버드 출신 교수진 영입

## 철학 전공 안강훈·강진호 교수 임용

### “지능형 AI 위해선 철학적 성찰 필수”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이)이 최근 철학 전공 교수진을 잇달아 영입하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인문학 기반의 교육과 연구를 본격화한다.

20일 GIST에 따르면 최근 동양철학·예술철학, 언어철학·AI 철학 분야의 신규 교수진을 인문사회과학부에 확보해 탄탄한 철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인문사회과학부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철학 전공 교수 2인을 새롭게 임용했다.

이번에 부임한 안강훈 교수는 동양사상과 비교철학, 예술철학을 중심으로 학제 간 연구를



GIST 인문사회과학부 김건우 학부장, 안강훈 교수, 강진호 교수(왼쪽부터). <GIST 제공>

수행하며, 강진호 교수는 언어철학과 AI 철학 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강의와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교수로 부임한 안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교 철학과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15년간 재직한 언어철학 분야의 권위자다. 이번 학기 ‘철학의 근본 문제들’, ‘인공지능의 철학’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난다.

강 교수는 “단순한 통계적 AI를 넘어 인식론적 기반을 갖춘 진정한 지능형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의 본성과 AI의 가능성을 탐구해 AI 시대 철학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AI 시대의 혁신은 기술에 인문학적 통찰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며 “안강훈·강진호 교수의 임용을 계기로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유를 갖춘 창의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 광주시, 신규 ‘명예동물보호관’ 8명 위촉

광주시는 2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와 동물보호관 직무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월 위촉된 신규 보호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이와 함께 전체 10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시행해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다졌다.

명예동물보호관들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산책로 등 현장에 투입돼 반려견 안전 관리 준수사항 홍보와 동물등록제 계도 활동을 벌인다.

광주시가 개최하는 ‘반려동물 문화나들이 특



별주간(5월19-24일) 등 관련 행사 운영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새롭게 위촉된 분들과 기존 보호관들이 협력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한다”며 “명예동물보호관들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 전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 ‘역대 최대’

전남도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실시된 정부포상에서 훈장 1명, 국민포장 2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4명 등 총 7명이 선정돼 역대 최대 수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진행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7명에게 정부포상이 전수됐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전남 지역 장애인의 복지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 공로로 임흥빈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가 수상했다.



김종택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전남협회장은 장애인 권익 증진, 자립 기반 확산 공로로 국민포장을, 박현실 목포장애인요양원 행정지원과장은 전문성을 발휘한 중증장애아동과 중증와 상장애인 돌봄 공로로 국민포장을 각각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허준 동약포장 재사업소 시설장, 김성태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전남협회 완도군지회장, 백은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조재을 곡성군청 주무관 등 4명이 선정됐다. /양시원 기자

## 동신대-지역거점치료센터, 난독 학생 맞춤형 지원

동신대학교는 “전남도난독 학생지원센터가 지역거점치료센터와 함께 난독 학생을 위한 심층 진단과 개별 맞춤형 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신대 산학협력단 전남도난독학생지원센터는 전남도교육청의 ‘2026 읽기곤란(난독) 학생 심층진단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이행 기관으로 최근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읽기곤란(난독) 학생 진단·치료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거점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심층 진단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읽기곤란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행사는 16곳의 지역거점치료센터 센터장과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각 학년별로 요구되는 읽기 수준과 읽기곤란 특성을 반영해 진단 프로토콜을 세분화하는 데 합의점을 도출했다. /박선욱 기자

## 영광군, 초등생 30명 ‘서울 역사캠프’ 성료

영광군은 초등학교 5학년 30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친구랑 떠나는 시간여행-서울 역사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지역 청소년들이 교과서 속 역사에서 벗어나 생생한 현장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친구와 2인1조로 참여해 협동심과 유대감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가 동행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을 비롯해 경복궁 탐방, 광화문광장 세종이아기·충무공이아기 전시 관람 등 서울의 대표적 역사 명소를 두루 둘러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폭넓은 배움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결혼

▲권영일·최미주씨 아들 오현군, 김준수(광주 교통공사 경영본부장)·박미경씨 딸 다솜양=26일(일) 오후 2시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서울 강남구 학동로47길 5), 010-5256-5250.

## 부음

▲송동진씨 별세, 송창영(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장철·혜영·지원씨 부친상=발인 21일(화) 오전 8시30분 광주 VIP장터터에 VVIP 101호실. ▲박공식(뉴스핌 선임기자·전 무등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황미희씨 남편상, 박창현·예솔씨 부친상=발인 21일(화) 오전 8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031-900-0444).